

다산포럼



전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진정성의 정치를 위하여

가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이 말은 어느 때 같으면 박수를 받을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초점에서 벗어나 버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심한 끝에 선택'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기념사가 '맹탕'이라고 비판하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5·18정신 헌법 전문화'를 말하고 있고, 5·18 유족들 뿐 아니라 국민들 다수는 과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온 자리에서 "5·18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고, 2022년 2월 다시 한번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제 입장은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작년 5·18기념사에도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지만 헌법 전문화는 말하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헌법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는 또 다른 비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받았다.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그것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는 정의의 철학이자 사상이다. 2016년 촛불대집회를 거치면서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주권재민의 사상을 재발견한 국민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점차 시대정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기 정의의 제1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토대를 두면서 제5원칙인 기법과 정신계승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국민의 열망에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올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기념사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18 묘지에서 7시간 동안 천개의 꽃송이를 들고 일일이 희생자들의 묘지에 헌화하면서 비석을 뒤했다. 윤원식 차기 국회의장 예정자는 마석 민주묘지를 찾아 자신이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을 그리워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는 말의 정치와 행동의 정치로 구분되지만,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가 권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모름지기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다르거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정치인은 신뢰를 상실하며, 그의 정치적 생명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허언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정치를 원한다. 이는 곧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대한 엄중한 요구이자 기대이기도 하다.

기고

'광주 5·18 정신의 미래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지식과 기억 속에서 5·18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광주 5·18 정신이 미래에도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광주 5·18 정신의 미래화'라고 생각한다. 광주 5·18 정신의 부단한 재해석, 그리고 미래의제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아시아의 많은 민주주의·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다. 광주는 아시아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성소(聖所)가 돼 가고 있다. 25년차를 맞은 '광주 인권상'은 이미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영예로운 상이 돼 있다. 이는 광주를 단지 한반도 남부의 지역도시가 아니라 아시아의 현재적·미래적 실천에 영감을 주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5·18 정신의 미래화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광주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구현할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권력의 분산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지만 지역 토호와 기득권, 지역주민의 삶과 분리된 중앙정치의 모방, 강고한 지역불평등 질서의 고착과 심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나는 광주가 5·18 정신의 계승을 통해 지방자치의 전범이 돼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단체들 간의 균열과 분리 역시 인지상정 차원의 갈등을 넘어선 대안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될 때, 광주는 다른 지역에 영감을 주는 미래도시로 지속될 것이다.

나는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투옥되었던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소기금'을 만든 적이 있다. 우리가 받은 형사 보상금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마련한 기금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5·18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국경 지역 활동가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학교'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 평화연방'을 구성하는 '논론 공동사업'도 있었다. 유럽의 평화연합과 유사한 초국가적인 평화 연합의 가능성을 민주화 정신의 연장선 위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동아시아 평화회의'를 제안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만시지탄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운동을 쏟고 있다. 단지 조례 하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권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는 광주 5·18 정신이 있다. 물론 광주는 지금도 아시아 인권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키워가고 광주가 바람직한 미래를 앞당겨 실현하는 선진 인권도시가 된다면 그 상징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1980년 5월 학살을 대면한 광주 시민이 느낀 절망을, 나는 합부로 가능할 수 없다. 다만 절망이 깊을수록 더 간절해지는 열망,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대해선 감히 공감한다. 그 열망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의 씨앗이 광주에서 꿈틀대리라고, 나는 해마다 5·18 기간이면 생각한다.

청춘 특특

무분별한 영어 사용의 역습

이 급격히 증가해 광고, 미디어에서 교육 및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자막이나 MZ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소위 '인싸' 용어들도 영어 아니면 영어와 한국어가 결합된 단어가 많다. 이는 현대성과 글로벌 연결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어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위에서 언급한 주거용 아파트의 복잡한 영어 이름으로 인한 부작용처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무분별한 영어사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9%가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라고 답했고, 15.7%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단지 세련돼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배제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본다. 언어는 문화 유산의 핵심 요소이며 영어의 지배는 한국의 풍부한 언어 전통을 가리고 약화시킬 수 있다. 영어가 한국어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됐다는 인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의 독

창성을 잃고 지역 정체성을 균질화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이 영어의 과도한 사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영어 능력은 종종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더 나은 교육 기회, 더 유리한 취업 기회와 연관된다. 따라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언어적 불균형은 비영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키우고 소속감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세계화로 가는 첫걸음은 영어 교육일지 몰라도, 세계화로 가는 올바른 길은 우리말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를 잃으면, 문화를 잃고 나라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말을 없애려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한 것도 언어가 없으면 그 민족은 말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한국어라는 소중하고 위대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말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언어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당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다.



김혜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2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름은 몇 글자인가요? 최근 뉴스에서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는 전남 나주시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캐운티 1차'와 '2차'로 무려 25자였고, 경기화성에도 한참 읽어야 하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는데, '동탄시범 다운타운 웰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로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거나 쓰여진 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다.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쉽고 간결하게 짓자는 의견도 있지만, 아파트 이름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 때문에 당분간은 긴 이름이 대체를 이룰 전망이다.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영어 사용

社說

민주당, '당원 중심'도 좋지만 민심도 챙겨야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 조만간 치러질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거와 2년후 예정된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반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에게 있어서 당원과 괴리가 있는 듯 하다'는 당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본격적으로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명심(明心·이재명계) 지원을 받은 추 의원이 패한 후 강성 지지층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당원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합이 추대하던 관행에 대해 앞으로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권리당원 수가 시도당마다 차이가 있어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해 준비가 어느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전당대회에서 60대 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할 바 있다. 정당을 더 따치는 것은 당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러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는 현실을 볼때 이번 조치가 민심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다. 더구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호남의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도 당 지도부의 입김이 세져 후보들이 유권자보다 지도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선거는 항상 중도층을 잡는 정당이 승리해왔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겼으면 한다.

의료 공백 석달째, 의정갈등 접고 대화 나서길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진료 현장을 이탈한지 어제는 3개월이 지났지만 의정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최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의정갈등은 여전히 원점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최우 통첩하고 대학에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달라진 건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저항하고 있는 등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전남 대법원은 의료진 피로누적에 따라 자율적 급요일 외래 진료 휴진제를 권장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일반병실은 평시의 40~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수술도 평시 대비 30%대로 떨어졌다. 환자들은 상급 병원이 진료와 수술을 대폭 축소한 탓에 개인병원과 2차 병원을 전전하고 있고 수

술 일정이 늦춰진 환자와 가족들은 애타게 태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외래 환자가 13.5%, 입원환자 36.6%가 줄어 3개월 동안 총 480억 원을 웃도는 적자를 냈다. 조선대병원도 기존에 모아둔 운영비로 버티고 있으나 수익원 적자가 쌓이다 보니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강경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여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의료계도 '의대증원 백지화'라는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기 보다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타결 전망이 어두운 의정갈등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캠퍼스를 떠나 집단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처지도 살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 소모적인 갈등의 반복이 아닌 대화와 협의에 의해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 말을 믿어줘, 증세는 없어"(Read my lips:no new taxes).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미국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88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인기 중재정적 타개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고 유권자들이 믿지 않자 이같은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2년 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자 결국 그는 공약을 깨면서 증세를 택했고 2년 후 재선에서 낙선했다. '식언(食言). 한번 입 밖으로 냈던 말을 다시 입속에 넣는다는 의미로, 앞서 한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식언이비(食言而肥)도 이같은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해온 맹무백 등 신하를 꼬집는 과정에서 나왔다. 맹무백이 몸집이 비대한 관중에게 놀림 삼아 "어떻게 살이 쪼셨소"라고 묻는 것을 보고 애공이 도중에 끼어들어 "(당신들이 한) 거짓말을 먹으니 어떻게 살이 찌지 않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김지용 정치부 부장 dok2000@

우리 정치사는 '식언', '말바꾸기'의 역사가.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서울 사수'를 밝히고도 몇 시간 뒤 한강다리를 폭파시키고 후퇴했다. 쌀 개방(김영삼), 대선 재정적 타개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고 유권자들이 믿지 않자 이같은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2년 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자 결국 그는 공약을 깨면서 증세를 택했고 2년 후 재선에서 낙선했다. '식언(食言). 한번 입 밖으로 냈던 말을 다시 입속에 넣는다는 의미로, 앞서 한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식언이비(食言而肥)도 이같은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뒷담화를 해온 맹무백 등 신하를 꼬집는 과정에서 나왔다. 맹무백이 몸집이 비대한 관중에게 놀림 삼아 "어떻게 살이 쪼셨소"라고 묻는 것을 보고 애공이 도중에 끼어들어 "(당신들이 한) 거짓말을 먹으니 어떻게 살이 찌지 않겠냐"고 답했다고 한다. /김지용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80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